인도네시아,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

바이오디젤 90만킬로리터 추가 생산 ... 팜유가격 하락 자구책으로

세계 최대의 팜원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일간 자카르타포스트가 1월10일 보도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통상차관은 “바이오연료 생산확대가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 팜유가격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팜원유 300만톤을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한다면 국제 팜유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 90만kl를 더 생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리터당 3000루피아(약 0.3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가 재생 가능한 연료 사용을 촉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연료가격 상승 후 바이오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소비는 저조한 편이며, 2010년 바이오연료 사용량은 22만3000kl로 정부 목표 173만kl에 크게 못 미치지 못했다.

바유 차관은 또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로 팜원유의 국내소비가 늘면 제2위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팜유시장에서 양국 사이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인도네시아는 2012년 팜유정제제품의 수출세를 25%에서 10%로 낮추었고 말레이시아는 팜유제품 수출세를 23%에서 4.5-8.5%로 인하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팜유협회(Gapki)는 2013년 팜유 생산량이 2900만톤으로 2012년 2650만톤(추정치)보다 9.4% 증가하고, 수출도 2012년 1815만톤에서 2000만톤으로 10.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0>